

연예뉴스 스테이션

포맨 출신 김영재, 외제 승용차 횡령혐의 기소
 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그룹 포맨 출신의 김영재(35)가 외제 승용차 횡령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김영재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지난해 7월30일 박모 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두달간 외제 승용차를 빌려 탔다. 이 승용차는 모 업체 명의로 대여됐다가 분실된 차량으로, 김영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차를 빌려 사용한 혐의다.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과 요트매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섯 명으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희열, 콘서트 도중 관객 향한 발언 사과

가수 유희열(사진)이 콘서트 도중 관객을 향해 꺼낸 발언이 논란을 빚자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다. 유희열은 6일 "경솔하고 가벼운 행동과 말에 아쉽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다"며 "부끄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다. 유희열은 2일부터 서울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고 관객과 만났다. 둘째 날 공연에서 그는 여성관객을 향해 "토이의 공연이 처음 시작됐을 때 여성생, 여고생이던 사람들"이라며 "내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자리 분들은 다리를 벌려 달라"고 말했다. 친근감의 표현으로 꺼낸 농담이지만 공연 이후 이 발언을 문제 삼는 의견이 나왔다.

이다희, KBS 2TV '연예가중계' 신현준과 진행



연기자 이다희(사진)가 KBS 2TV '연예가중계' 진행을 맡는다. 이다희 소속사 매니저먼트 구는 "11일 방송부터 기존 진행자인 배우 신현준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다희의 '연예가중계' 진행자 발탁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인 활약으로 가능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의 여군특집에 참여 발달한 매력을 보여준 인지도도 높였고, 이에 힘입어 연예 정보 프로그램 진행까지 맡았다. 소속사는 "예능은 물론 드라마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훈, KBS 1TV '징비록' 이순신 역 확정

배우 김석훈이 이순신 장군을 연기한다. KBS 1TV 드라마 '징비록'의 주인공 이순신 역을 연기할 배우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석훈이 출연을 확정하고 11일 방송부터 시청자를 찾는다. '징비록'의 제작 관계자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부터 그릴 예정"이라며 "입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전투 장면도 담는다"고 밝혔다. 김석훈은 류성룡 역의 김상중, 선조 역의 김태우와 연기 대결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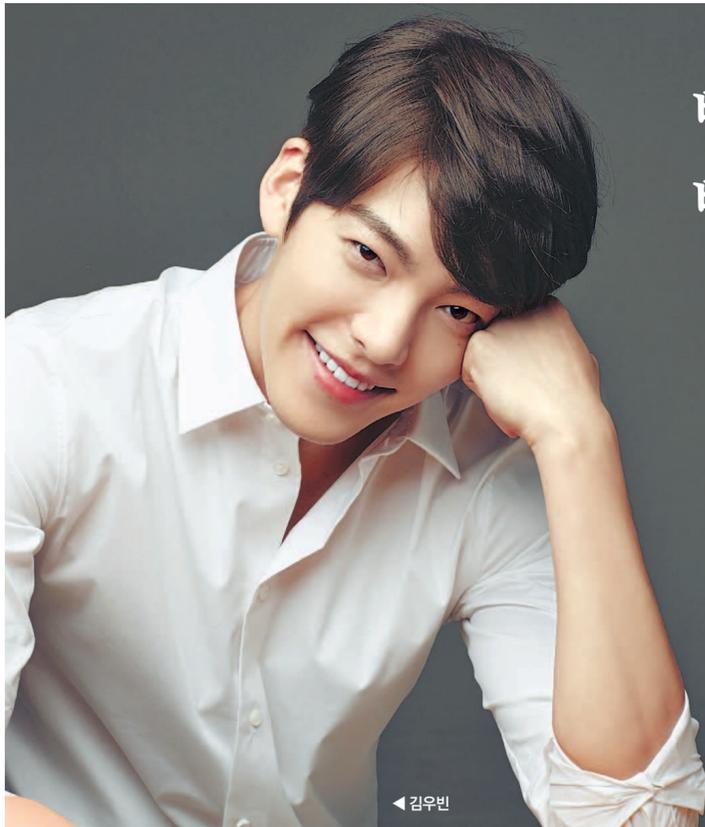
부활, 5월16일 30주년 기념 콘서트

록밴드 부활이 5월16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회에 걸쳐 '부활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연다.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그동안 부활의 보컬리스트로 활동해온 가수들도 참여한다. 이들을 통해 '희야 사랑할수록'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 부활의 여러 명곡도 들을 수 있다. 부활은 "30년 동안 발표한 여러 노래에 얽힌 사연을 리더 김태원이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가수들이 참여한 합동 무대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앱스토어 게임 매출 랭킹

순위	게임명	서비스사
1	레이븐 with NAVER	Netmarble Games
2	클래시 오브 클랜	Supercell
3	세븐나잇 for Kakao	Netmarble Games
4	모두의 마블 for Kakao	Netmarble Games
5	영웅 for Kakao	4:33
6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Com2uS
7	몬스터 길들이기 for Kakao	Netmarble Games
8	캔디 크러쉬 소다	King.com
9	라인 레인저스	LINE Corp.
10	쿠키런 for Kakao	DevSisters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김우빈

빵~ 터진 영화 '스물' 빵빵~ 터진 배우·감독

- 주인공 김우빈 '원톱 실력' 증명 '친구2' '기술자들'과 달리 이야기 이끌며 티켓파워 과시
- 이병헌 감독 '스크린 블루칩' 부상 첫 상업영화로 20~30대 공략...영화 연출 제의 쏟아져



▲이병헌 감독

영화 '스물'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가히 '반란'이라 할 만하다. 영화 '스물'(제작 영화 나무)이 6일까지 230만 관객을 모았다. 2주 연속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위. 이 추세라면 이번 주말 300만명을 넘어선다. 영화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 단계인 손익분기점(150만)도 일찌감치 돌파했다. 순제작비 규모 30억원만 놓고 보면 중급 영

화에 속하는 '스물'은 최근 100여원을 가뿐히 넘기는 제작 환경에서 보기 드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마케팅 비용을 더할 경우 총제작비는 좀 더 늘어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적은 예산으로 거둔 반전의 흥행으로 평가받는다.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분위기에 힘입어 주인공 김우빈과 연출자 이병헌 감독, 투자배급사 NEW까지 일제히 '잭팟'을 터트리고 있다. 동시에 극장가도 오랜만에 활기를 띤다. 김우빈은 '스물'을 통해 '원톱' 주인공으로 그 실력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 전작 '친구2', '기술자들'에서는 유오성, 김영철, 고창석 등 선배들에 의지한 부분이 크지만 이번엔 또

래인 강하늘, 이준호를 아우르며 이야기를 이끌었다. 20대 연기자 가운데 김수현을 잇는 '티켓파워'도 인정받고 있다. 앞선 두 편의 영화로 200만 관객을 모아 주목받았고 이전 첫 300만 돌파까지 목전에 뒀다. 또래 연기자들이 인기 에 비해 영화 흥행에서는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활약이다. 이병헌 감독은 웬만한 스타 부럽지 않은 '스크린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첫 상업영화인데도 기발한 이야기와 20~30대 관객을 정확히 공략한 감각으로 연출 제의가 쏟아지고 있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이 감독이 연출하

기로 한 영화는 블랙코미디가 가미된 사극 '기방도령'(가제)과 또 다른 장르"라며 "이런 계획이 널리 알려졌지만 작업을 원하는 여러 제작자의 협업 요청이 팽창하고 있다"고 밝혔다. NEW 역시 오랜만에 반색하고 있다. 거의 1년 만에 흥행작이 탄생한 덕분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100여원을 들여 제작한 '해무'를 시작으로 높은 제작비가 투입된 '패션왕' '빅매치' '허삼관' 등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한 뒤 연은 수확이 '스물'이다. 증권업계의 전망도 밝다. 신영증권 등은 '스물'을 계기로 NEW의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혜리 기자 gofi1024@donga.com



뉴스 인사이드 | 조승우, 17년 파트너와 이별한 이유는?

조승우 "영화 집중" PL엔터 "뮤지컬 주력" 의견 달랐다

지난해부터 논의...'발전적 이별' 백해 뮤지컬 특화 기획사 벗어나 활동 넓혀
 배우 조승우(사진)가 17년 동안 동고동락해온 '파트너'와 이별했다.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독립이다. 이를 계기로 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조승우가 소속사 PL엔터테인먼트를 떠나 굿맨스토리로 이적했다. 새 소속사는 6일 "조승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조승우가 2006년 출연한 영화 '타짜'부터 호흡을 맞췄던 또 다른 매니저가 최근 설립한 기획사다. 조승우의 이적이 연예계의 관심을 얻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데뷔 시절부터 함께 해온 PL엔터테인먼트의 송혜선 대표와 맺은 오랜 인연 때문이다. 소속사와 겪은 갈등이나 전속계약 분쟁 등이 비일비재한 연예계에서 두 사람은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왔다. 조승우는 데뷔작인 영화 '출항전'이 개봉한 1999년부터 송 대표와 함께 일해 왔다. 특히 2005년 영화 '말아톤'으로 스타덤에 오른 직후 대형 기획사로부터 거액의 계약금을 포함한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군 입대는 물론 제대 이후에도 재계약을 이었다. 조승우가 독립을 선택한 배경은 '활동 변화'를 위한 새 출발로 받아들여진다.

2010년 제대 후 출연 뮤지컬 무대에 주력해 온 그는 지난해부터 영화에 대한 욕구를 보여 왔다. 그 시작으로 영화 '내부자들' 촬영을 마쳤고, 또 다른 영화에 카메라로 참여하는 등 활동 보폭을 넓혀왔다. 반면 전 소속사는 뮤지컬 분야에 특화된 기획사다. 물론 17년간의 인연이 단숨에 끊긴 건 아니다. 조승우는 지난해부터 전 소속사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발전적 이별'을 택했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6일 "서로 돕는 방법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며 "전 소속사에서도 관련 업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승우의 독립 사실을 미리 여러 제작사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fi1024@donga.com

방송사, '예능 대세' 시청률 우려먹기 심하네

하이슈 연예인 캐스팅해 개인기 등 재탕 새로운 매력 발굴 없이 천편일률적 소비
 '강균성, 강남, 유병재, 유승욱, 하니...' 최근 방송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일명 '예능 대세'들이다. 각각의 매력을 앞세워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이 방송사들의 천편일률적인 전략에 빠진 속도로 '소비'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들은 요즘 TV만 틀면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데뷔 이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룹 노을의 강균성은 지상파 방송 예능프로그램을 점령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다. 올해 2월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를 통해 감추었던 감각을 분출한 이후 '세바퀴', KBS 2TV '해피투게더 3'에 출연했다. tvN 'SNL 코리아'의 작가 출신인 유병재와 '무한도전' 식스맨 후보에 오른 뒤 SBS '런닝맨' 동반 출연도 앞두고 있다.

몸매 하나로 스타덤에 오른 모델 출신 유승욱은 케이블채널 온스타일 '더 바디쇼'의 MC로 발탁됐고, MBC 드라마 '여왕의 꽃'과 '압구정 백야'에서는 쉼시한 이미지로 특별출연하기도 했다. 엠아이비의 강남과 EXID 하니 역시 주요 예능프로그램의 고정 멤버로 활약하며 그룹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물론 인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스타를 출연시키고자 하는 방송사의 입장은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활용법이다. 당장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캐스팅해놓고는 새 매력을 이끌어내기는커녕 기존 개인기 등을 재탕하는 것으로 일관해 지루함마저 안기고 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6일 "연예계에서 '대세'라는 단어를 얻는 기회가 드문 만큼 뜨거운 러브콜이 달콤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방송에서 빠른 속도로 이미지가 소비되면 이후 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일밤-복면가왕' 룰린 조건은 '섭외'

첫 방송 시청률 6.1%로 순조로운 출발 민철기 PD "출연자 리스트 상당수 확보"
 5일 첫 방송한 MBC '일밤-복면가왕'이 그동안 부진을 겪던 '일밤'의 구원투수로 주목받으며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6.1%(닐슨 코리아 집계)의 시청률을 기록한 '복면가왕'은 이제 룰린을 위한 실질적인 고민에 나서게 됐다. 방송가에서는 '섭외'를 그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는다. '복면가왕'은 가면을 쓰고 나니, 신봉, 직종을 숨긴 스타들이 목소리만으로 실력을 뽐낸다는 점에서 그동안 대중의 관심에서 멀었던 인물들을 재조명할 수 있는 무대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 음악프로그램들이 인기 아이돌의 독무대가 된 지 오래인 현실에서 무명의 신인가수나, 잊혀진 추억의 스타, 소규모 기획사의 실력파 가수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무대다. 실제로 첫 방송 이후 많은 가요관계자들이 제작진



에게 주변의 실력파를 추천하거나 동영상 보여주는 등 사전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출자인 민철기 PD는 6일 "이미 출연자 리스트를 상당수 확보한 가운데 꾸준히 추가하고 있다"면서 "출연 조건 역시 가수에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졌음에도 보이지 않는 제약으로 지상파 방송 출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룹 JYJ의 김준수가 '복면가왕'의 콘셉트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추천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모든 연예인에게 출연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제작진의 말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